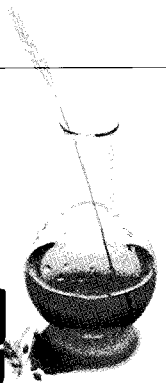


「초등교원 농업탐방 연수과정」 중 농약안전성 강의



처음 접하는 새로운 지식 초등교육에 큰 도움 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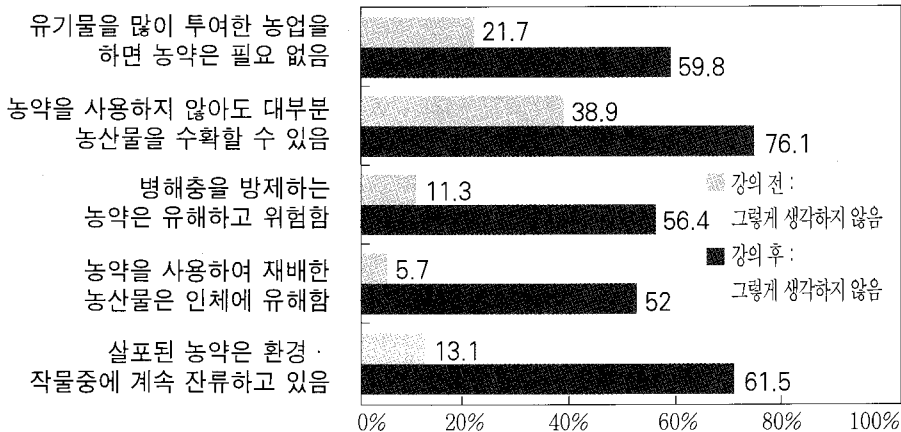
서울·경기소재 초등교원 대상,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인식 제고 효과 커

-홍보부-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 7월 27일과 8월 3일 두차례에 걸쳐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원 농업탐방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의뢰로 연구, 발표한 '초·중등학교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70, 80년대 낙후된 농촌을 현재 모습처럼 잘못 묘사하거나 역시 30-40년전에 폐지되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작물보호제 DDT의 독성문제를 표기, 마치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자칫 학생들에게 우리 농업과 농촌, 작물보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매체중의 하나인 교과서가 농어업·농어촌에 대하여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과, 교사의 설명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식이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각인되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적지 않음을 조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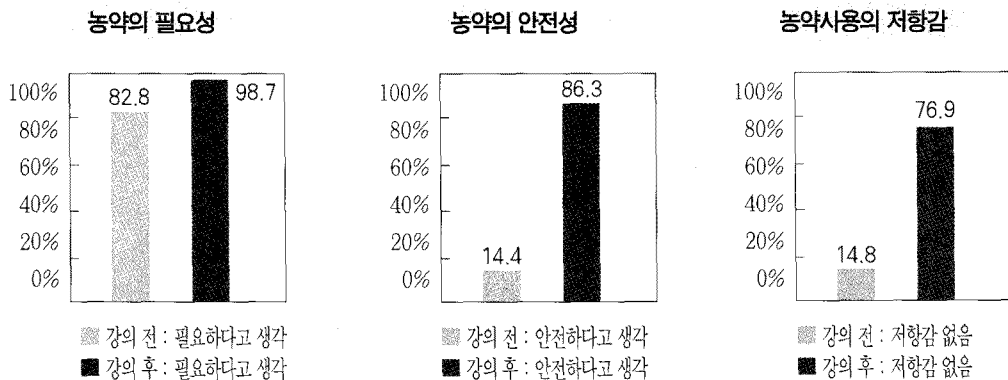
이에 우리 협회는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자인

초등학교 교원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물보호제 안전성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강의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국립농업과학원 농약평가과 신진섭 과장은 「초등학교 농업실과 교육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현재 교과서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에 대해 집중 강의하였다.

강의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과 열띤 토론의 시간이 진행되는 등 초등교원들로 하여금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의 전·후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초등교원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본다.

강의 전·후 농약에 대한 이해도 평가



「초등교원 농업탐방 연수과정」 중 농약안전성 강의

강의 전·후 인식변화 확연히 드러나

이날 농약 및 우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 전 농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은 예상대로 79.7%가 「안전성이 불안하기 때문」 「자연적으로 재배된것이 좋기 때문」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강의 전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음」 38.9%, 「유기물을 많이 투입한 농업을 하면 농약은 필요없음」 21.7% 였으나 강의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음」 76.1%, 「유기물을 많이 투입한 농업을 하면 농약은 필요없음」 59.8%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강의전 「살포된 농약은 환경·작물중에 계속 잔류하고 있음」이 13.1%에서 강의후 무려 61.5%의 변화를 보였다.

세미나 참가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의전·후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강의 전 14.4%에서 강의 후에는 86.3%참가자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은 강의 전 14.8%에서 강의 후에는 76.9%가 없어졌다고 답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다시한번 세미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대부분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교육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농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 「불신감이 어느정도 사라졌으며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농약개발에 많은 시간과 독성 실험 입증 등 철저한 등록제도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다」 「농산물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기준이 있음에 신뢰가 간다」 「의약품 개발과 전혀 다름없이 엄격한 시험결과를 통해 생산된 것이므로 대부분 잔류농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안전성’ 적극적인 홍보 필요

반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의 시각도 다양했다. 「농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전히 잔류농약의 의심은 남는다」 「잔류농약 검사 역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믿기에는 불안감이 따른다」 「강의내용은 유익했지만 농업인이 농약사용시에 검증된 것만 사용한다는 확신이 없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개선점에 대해서는 「농약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이듯이 농약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 강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활용하여 전국민에 대한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Y